

가부장제下 훼손된 여성의 삶 형상화

이경자 소설집 「뽕추네 사랑」

이경자의 「뽕추네 사랑」은 「절반의 실패」에 이어 '여성문제 소설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러한 부제에 걸맞게, 그리고 작가가 기왕에 추구해 온 문제의식에 걸맞게 여기 실린 소설들은 '뽕추네 사랑'과 '틈'을 제외하곤 여성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노스웨스트로 떠난 아버지'와 '살아남기'는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작품들로서, 소설가이자 주부인 주인공의 삶과 관련하여 이 사회, 좁게는 가정내에 만연되어 있는 공고한 가부장제 의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훼손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가면'이 보여주는 세계는 다분히 충격적이다. 시국 사건으로 해직당한 후 자유기고가·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남편 백성민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는 부도덕한 사회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상은 가부장적인 권위로 군림하는 이중성을 아내 민희의 삶과 시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민주화운동권의 가면 쓴 그의 실체를 벗기고 있다. '사슬을 세운다'와 '틈'은 기층민중의 삶을 그리고 있다. '틈'의 경우 딱히 여성문제를 의식하여 쓴 것은 아니지만 군바우집과 주인여자간의 삶이 보여주는 간극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반해 '사슬을 세운다'에서 선욱이 '남편·가장·아버지는 아내와는 다른 상위 계급'이라는 이전의 인식을 탈피하여 한탕주의자인 남편의 타락상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분히 관념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뽕추네 사랑」을 제외한 이경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훼손된 삶은 남성들에 기인한다. 그것이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혹은 소부르조야계급이던 하층민이건간에 상관없이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완강한 지배의 틀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들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우선, 작가가 머릿말에서 '성차별이 사회구조와 맞물려 어떻게 여성의 삶을 뒤틀리게 하는가를 형상화했다'고 언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문제의 근원을 남녀의 대립구도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설 세계 자체를 협소화시키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게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작품이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혼여성과 관련된 가사노동이 여성의 주체적 삶에 커다란 장애로 등장한다. 때문에 '살아남기'의 미스김이나 '가면'의 경진에게서 보여지듯이 기혼여성이 기혼여성과 같은 문제의식속에서 포괄되지 못한채 오히려 대립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문제해결의 방식 또한 남성성에 대한 여성의 독자적 증오나 폭력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비교적 이를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살아남기'에서조차 해결은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 선언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은 결국 작가의 문제의식 내지 세계관의 협소함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체 사회구조적 모순과의 연관속에서 형상화될때 진정한 여성해방 소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방향만이 90년대에 이경자를 비롯한 여성작가들이 전체 민족문학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양선

서울 관악구 신림4동 477-33·대학원생

정상적인 삶을 위한 절규

윤정모 소설 「고삐」

어떤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현실과의 관계란 어떤 것일까. 사람이 사회나 역사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것들에 의해 영향받는 존재인 한 개인과 사회와 역사라는 상호관련성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과 역사의 흐름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혼돈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수록 개인과 사회와 역사의 관계 규명이 더욱 절실해진다.

윤정모의 「고삐」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 역사라는 상호 관련성의 관계에서 한 인간이 자기에게 운명지워진 어두운 과거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당당히 역사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이 소설은 우리 현대사의 절곡에서 비롯된 어둠이 어떠한 형태로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억압의 상황을 인식한 개인이 그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역사의 주체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정인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식민지 체험과 외세와 전쟁과 정치적 혼란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철저히 부서져 버린 어머니의 삶은 정인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정인의 발목을 묶은 고삐였다.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예측되어진 삶을 강요당해 왔던 정인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그 과정이 비록 수치와 절망으로 가득찬,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별판을 걷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세월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한 개인이 태어나기 위해 선행

되어진 진통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악취뿐인 내 지난 행적이 전부 세상타일 수만은 없다 해도 한번쯤 정직하게 돌아봄으로써 조금이나마 지워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완전히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가벼워지길라도 한다면..."

정인의 이러한 인식과 함께 남편 상우는 정인을 안개 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등불과도 같은 존재이다. 정인이 자신을 동여매고 있던 과거의 어두운 사슬-어머니의 부패한 삶-을 끊고 사회와 역사 앞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준 것이다. 그리하여 낳아 준 엄마보다 더 가까운 혈연이라고 믿었던 해인과도 절연함으로써-미군과 결혼한 해인은 또 다른 예측적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역사의 주체자로서 역사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윤정모의 「고삐」에는 정상적인 삶을 갈구하는 한 개인의 피맺힌 목소리가 있다. 무엇이나 지배 사슬로만 얽혀 있는 세상에서 힘으로부터의 예측이 아닌 동등한 관계의 개인들이 모여 이룩하는 세계, 그 정당한 삶의 공간을 위하여 작가 윤정모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지나간 시간들에 손을 흔들며 아침 햇살을 쬐고 있을 것이다.

황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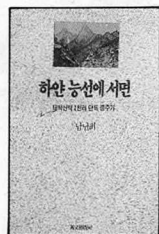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APT 425-309·회사원

수문의 자연사랑 운동 ① 맑은 계곡물은 우리가 지킵시다!

“큰 경험 진한 감동”

秀文出版社 906-0707
904-4774

하안능선에 서면



여자 혼자서 몸으로 어떻게 태백산 백의 천구간을 걸어갔을까? 이 책에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 남난희/값 3,800원

산의 환상



생각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일하는 시간이나 즐기는 시간 못지않게 필요하다. 이 책은 자연과 인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 프랭크 스마이드/안정효 역/값 4,500원

티베트에서의 7년



제2차세계대전 중에 포로가 된 저자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여 티베트로 가서 달라이 라마의 개인교사가 될 때까지 생활을 담은 여행기.
• 하인리히 하러/한영탁 역/값 4,800원

영광의 복벽



'사람잡는 귀신'으로 불리는 아이거복벽을 등반하면서 엿본 삶의 비밀들을 기록한 정광식의 등반기이다.
• 정광식/값 3,500원

아아/ 천지다



「아아! 천지다」는 1936년에 순우리민족이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탐험한 의미있는 책이다. 백두산의 지형과 풍물, 자연이 소개된다.
• 서춘외/값 4,500원

90년대를 예감케 하는 시경향

시정신 동인의 「이별은 두별」

현재진행형은 늘 불안하다. 현대인이면 다 그러하듯 그것은 우리의 삶에 비취보야 급격한 변화, 텅빈은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는 시간대에 놓인다는 강박관념위에 놓인다. 지나간 80년대의 시편은 일종의 그러한 불안의 시절이었다는 것을 술한 용어를 곁고 나온 시들이 말해준다. 노동자문학, 참여시, 현장문학 등 전에 없이 삶의 치열성을 한껏 고양시켰던 시절과 지금 90년대가 무엇 다른바 있겠는가. 하긴 그렇다. 그건 물리적 시간단위로 보아 1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명분상, 의식상 별려놓은 의식적 거리감에 불과한 차이이다. 그런데 그건 묘하게도 실제 작품에 상상 이상으로 80년대의 커다란 흐름, 예컨대 리얼리즘적 경사를 한순간에 밀어붙이려고나 하듯 반반의 징후처럼 발빠른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전에 이에 농축하고 있었던 개성들이 숨을 죽이다가 90년대라는 시간에 맞춰 발성한 탓도 있겠으나 과격한 구호, 처절한 슬로건, 산문적 취향에 깊이 몰입한 고발들이 시라는 이름으로 설치고 지나간 자리에서 독자들은 새삼 시의 은밀함, 포근한 갈등의 발화를 기대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징후는 아무래도 문단의 진출이 6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웬만큼의 저력을 겸비한 시인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져 나타나는 바, 시정신 동인의 「이별은 두별」(문학아카데미)에서 잘 읽어볼 수 있다. 50을 전후한 연배들의 동인 11명은 우리나라의 시단에서 줄기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만만찮은 시인들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90년대 시경향은 대체로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 아닌가 예견해 준다는 점에 한결 상징성이 강하다.

강우식의 비판적 성향의 톤이 운동권 학생들의 목소리와 달리 아이러니, 패러독스적 요소를 지니며 둔중하게 비판적 시각을 마련하는가 하면, 김원호는 개인적 체험이 공간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이 시대가 벌여놓은 산업화, 고도성장의 뒤편에 황량한 기억의 고갈을 감내해야 하는 쓸쓸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탄의 경우는 그가 유람한 특정공간을 보여주되, 그가 겪은 일상의 체험, 허무의식적 사물에서의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사색과 관조를 거친 뒤에 토해 놓은 시편들이란 확증을 잡게한다.

이러한, 얼마간의 회고적 취향과 과거지향적 기록들은 이른바 80년대가 쏟아놓은 언어의 충격, 혹은 산문적 직접성으로 말미암아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던 많은 독자에게 일단 포근함을 안겨주는게 사실이다. 지나간 시대는 진행형이나 현재형의 풍경처럼, 아니면 미래에의 암울한 전망처럼 긴장을 주지는 않는다. 기억의 저편인 과거에 서서히 몰입한다는 점은 시의 서정성이 살아난다는 얘기와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시는 한편으로의 급격한 경사를 용납하지 않는 발화체인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90년대는 현실과 서정의 변증법적 지양에 관심이 높아지리라 기대해볼만도 하리라.

김호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41-208 · 대학원생

삶의 필연성 거부한 '개인'의 자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기묘한 감동을 안겨주는 특이한 작품이다. 어느 정도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면서도 소설의 재미를 놓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자신에게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도 없이 한 여자에 대한 사랑과 이 한 여자를 제외한 모든 여자에 대한 성욕 — 백만분의 일이라는 차이점을 찾기 위한 노력 — 속에서 살아가는 성실하고도 유능한 바람둥이 토마스, 토마스로 인해 언제나 고통받고, 위안받는, 토마스가 건져올린 바구니 속의 아기와 같은 테레사. 배반에서 배반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항상 전진하는 사비나.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모호한 재능있는 대학교수 프란츠. 체코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담담하게 펼쳐지는 이 네사람의 삶과 그 삶의 연쇄가 이 작품의 줄기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이후의 삶에서 교정할 수도 없다. ... 어떤 결단이 올바른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비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최초로, 준비없이 체험한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결단에도 필연성을 두기를 거부한다. 아니, 우연과 필연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어떠한 존재에도, 사건에도 ‘만드시...해야만 해. 혹은...했어야만 했어’라고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수많은 우연이 쌓인 곳에 필연을 들여오기를 즐기듯이 ‘그럴 수 밖에, 그렇게 할 수 밖에’라고 되뇌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토마스나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의 수많은

그리고 간결한 결단들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자 하지 않는다. 인간 존재의 삶이 마치 그런 것 처럼, 여기에서 작가는 인간의 시간이 언제나 직선으로 진행됨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시간은 반복되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또한 영화화되어 아직까지도 상영되고 있는 덕분에 한 작품을 두 가지 언어로 접할 수 있는 재미도 안겨준다. 시종일관 어떤 표정도 읽어볼 수 없는 토마스의 얼굴. 그 무표정함 이상으로 토마스를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 있겠는가?

분명 영상 언어는 보다 강하게 뇌리에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측면에 불과하다. 밀란 쿤데라는 한 권의 책으로 수많은 작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즉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마치 투명한 유리구슬과 같아서 이를 접하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습의 언어로 치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체코의 특이한 역사적 상황과 이 상황 속에 잠겨있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현재 우리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전체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리매김에 관심깊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김미경

서울 용산구 신계동 1-31 삼락연립 가-201 · 학생

컬러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

이익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の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 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 김범집
● 고독이라는 교만
(212쪽 ₩ 2,500)

●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148쪽 ₩ 2,000)

도서출판 대림기획
전화 : 02-275-5296